



DAESHIN UNIVERSITY

# 大神學報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  
대신대학교

•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양성 •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 •

발행인 최대해 주간 양신혜 편집장 김신향 / 제48-49호 2017. 12. 1 / http://www.daeshin.ac.kr / 경북 경산시 경천로 222길 33 TEL. 053-810-0701~3

## 깊어지는 신앙, 깊어지는 삶



날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날 전도서 3장 11-15절과 출애굽기 14장 15-20절을 본문으로 <알았고 알았도다>,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만 전하는 교회와 원우들이 되기를 말씀하셨다.

3일 간의 수련회를 통해 원우들의 2학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편집장 김신향

### 학생신앙 수련회

2017학년도 2학기 학생 신앙 수련회가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수련회는 8월 29일 (화)부터 8월 31일 (목)까지 대명교회 담임목



사이자 대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인 장창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 빌립보서 1장 19-21절과 사도행전 11장 24-26절을 본문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과 참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좋은 사람은 단순해야 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둘째 날 여호수아 2장 8-14절과 마태복음 14장 22-33절을 본문으로 <인생 리모델링을 위하여>, <배 안의 사람 배 밖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듣고 삶의 변화를 통해 인생이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삶의 풍량을 만



## 오스기 Sola Scriptura!!

### 유스경건회 수련회



7월 31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대신대학교에서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섬기고자 중고등부 유스경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신학과 양신혜 교수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원우들이 기도와 스텝으로 자원 봉사하여 물질로

마음으로 섬겼다.

오스기(오직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수련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3문을 중심으로 교리교재를 만들어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분한 교리가 아니라 재미있게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통해서 교리교육의 다양성을 시도하였다. 재미있게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놀이를 통한 교리개념 이해,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배웠고, 올바른 성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깊



은 사랑을 느꼈다. 인원은 적었지만 지역교회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며 함께 하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더 잘 준비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에 위로가 되었다.

편집장 김신향

# 대신대학교 방문예배

### 이동석 목사 방문



지난 9월 5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청지기 교회의 이동석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상담영어학부 서길수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이동석 목사는 요 8:31-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류원모 목사 방문



지난 9월 6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e조은 교회의 류원모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음악학부 박준향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류원모 목사는 욥 10:1-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김천노회 방문



지난 9월 12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김천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김천노회 부회장 최선태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박대연 장로가, 성경 봉독은 노회서기 전상용 목사가 수고하였다. 노회장 김성수 목사는 대하 3:15-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에 대신대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셨고 부서기 김태준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 전광식 총장 방문



지난 9월 14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고신대학교의 전광식 총장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음악학부 양승혜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전광식 총장은 행 2:5-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학기,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여전도회 방문



지난 9월 19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문교회 여전도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음악학부 류진교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행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에 대신대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셨다.

### 김정석 목사 방문



지난 9월 20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김정석 목사는 찬양과 간증으로 예배를 인도하였고 영상을 통해 월드컵전을 소개해주었다.

### 김현두 목사 방문



지난 9월 26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선민교회의 김현두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학과 권정후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김현두 목사는 막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맞추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말씀 전하여 주셨다.

### 김삼수 목사 방문



지난 9월 27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푸른하늘교회의 김삼수 목사가 방문하여 신대원 헌신예배를 함께 드렸다. 이날 사회는 양승현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광섭 총무가, 성경봉독은 여수진 서기가 수고하였다. 이날 김삼수 목사는 마 9: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서철원 목사 방문



지난 9월 28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수도중앙교회의 서철원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학과 양신혜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서철원 목사는 엡 3: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김중철 장로 방문



지난 10월 10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신대학교 명예이사, 복일교회 원로장로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증 부총회장 되시는 김중철 장로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중철 장로는 빌 4: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김두홍 목사 방문



지난 10월 11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영신교회의 김두홍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음악학부 이경미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김두홍 목사는 갈 1:11-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부름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김광수 목사 방문



지난 10월 12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지인제일교회의 김광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현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광수 목사는 마 5:13-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안동노회 방문



지난 10월 24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안동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안동노회 서기 강전우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김병우 목사가 수고하였다. 안동노회 노회장 최재영 목사는 행 5:29-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증경노회장 김용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강만중 목사 방문



지난 10월 26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소망교회의 강만중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대은 총학 기획국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강만중 목사는 빌 4:10-13절의 말씀을 통하여 "Up Dream"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양철주 목사 방문



지난 11월 1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예일교회의 양철주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여수진 원우회 서기가 수고하였다. 이날 양철주 목사는 골 1:12-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경청노회 방문



지난 11월 2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청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경청노회 서기 김영석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경청노회 부노회장 김재석 장로가 수고하였다. 이날 경청노회 노회장 김중우 목사는 마 16:13-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경청노회 부서기 천주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김성근 목사 방문



지난 11월 3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낙산교회 김성근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승욱 신대원 신앙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성근 목사는 출 15:22-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 대구노회 방문



지난 11월 7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대구노회 부노회장 서성현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정재섭 장로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부서기 이창수 목사가 수고하였다. 이날 대구노회 노회장 박창식 목사는 마 1:29-31절의 말씀을 통하여 "회당에서 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주셨다. 증경노회장 이종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동대구노회 방문



지난 11월 8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동대구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동대구노회 서기 두인근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권명기 장로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화록 서기 박형춘 목사가 수고하였다. 이날 동대구노회 노회장 신대근 목사는 빌 3:13-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꽃대를 향하여 달려 가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특별히 동대구노회 소속 원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여 주셨다. 부노회장 정명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윤병운 목사 방문



지난 11월 9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백석대학교 교목실장 윤병운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미경 신대원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윤병운 목사는 요 15: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살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기현 목사 방문



지난 11월 10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외촌교회의 김기현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황지훈 신학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기현 목사는 요 14: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걸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대구수성노회 방문



지난 11월 14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수성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대구수성노회 서기 박종명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김동호 장로가 수고하였다. 이날 대구수성노회 노회장 장영일 목사는 뱀후 3:10-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파송이사 이희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재수 목사 방문



지난 11월 15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선교사 김재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윤만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인찬 원우회 친교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재수 목사는 행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섬김의 날을 맞이하여 대신대학교를 섬기시는 관리집사, 환경미화원, 통학차량운행 집사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전재규 장로 방문



지난 11월 16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전 대신대학교 총장 전재규 장로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종진 원우회 학술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전재규 장로는 마 2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최대해 총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서대구서노회 방문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대구서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서대구서노회 서기 김영중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표기도는 회록서기 김성곤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부서기 박정석 목사가 수고하였다. 이날 서대구서노회 노회장 정명철 목사는 창 14:13-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꿈꾸는 사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부노회장 한영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전지현 교육목사 방문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서문교회 전지현 교육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고, 대표기도는 이일우 원우회 기획홍보 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전지현 목사는 롬 8:28-3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남대구노회 방문



지난 11월 22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남대구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남대구노회 노회장 이영수 목사가 수고하였고, 대표기도는 노회장 서기 김삼수 목사가 수고하였다. 이날 중경노회장 신용기 목사는 절 21:4-9의 말씀을 통하여 "처다본 즉 모두 산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운영이사 이정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대구동노회 방문



지난 11월 23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동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대구동노회 서기 구희섭 목사가 수고하였고,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박은배 장로가 수고하였다. 이날 대구동노회 노회장 강흥찬 목사는 마 16: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중경노회장 김정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종강예배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2학기 종강예배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준항 학생처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최대해 총장은 사 38: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결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대명교회에서 대신대학교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여 주셨다.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본교 대신대학교는 10월 31일(화), 11월 1일(수) 이틀 동안 인문관 4층 채플실과,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강의와 논문 발표가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오신 도널드 톰슨(Donald Thorsen) 박사가 "종교개혁의 영웅(Here of Protestant Re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생애와 주요 내용을



특강을 통해 말씀해주셨다.

오후 시간에는 세대로 교회에 담임으로 섬기는 양승헌 목사가 "통합예배에 담긴 교육 목회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양승헌 목사의 특강을 통해 교육 목회의 원리,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도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복음과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관을 통해 교육 목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강의를 마친 후, 신대원 원우들과 신학과 학우들이 지난 여름 유스경건수련회를 통해 선보인 교리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본교 본관 4층에서 4개의 강의실로 나누어 강의식, 개념암기, 적용강의, 토론으로 각각 진행했다.

둘째 날은 도널드 톰슨 박사가 "개신교의 기여(Contribution of Protestantism)"라는 제목으로 오전 특강이 진행 되었다.

오후 시간에는 종교개혁 기념으로 총 8명의 원우들과 학우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김주안, 김진현 학생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이재우, 김지수 학생이 "WSD(Westminster Standard Document: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나타난 예정과 작정"을 발표했다. 두 학생은 기존의 발

표방식에서 벗어나 예정과 작정에 관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선보이는 색다른 방식을 선보였다. 세 번째는 강이삭, 김현민 학생이 "WSD에 나타난 은혜의 수단"을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박해일, 김영란 학생이 "WSD에 나타난 십계명"을 발표했다.

타 신학교와는 달리 본교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 구성하여 진행했다. 또한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 성도들의 참석으로 인해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준비와 수고가 있었던 만큼 종교개혁의 열정과 기쁨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지만, 일부는 이러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 너와 내가 하나되어

## 제1회 예랑제



2017년 9월 29일 대신대학교는 '제1회 예랑제'를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매년 2학기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도로 '예랑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대신대학교 박준향 교수의 기도와 최대해 총장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예배 후, 오전에는 MC 리터스의 정지훈 MC의 진행에 따라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 종목들-사격, 빨리마시기, 림보, 가위바위보 등이 진행되었다. 단순한 가위바위보 게임이지만 학우들은 게임에서 이긴 후 상품을 얻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기도 하였고, 단체게임을 통해 서로 이야기 하고 전략을 짜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함께 땀 흘리며 게임을 하였다.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모르는 원우들과 학우들은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었고, 기존에 알던 원우들과 학우들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는 각 학부별로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었다. 또한 각 학부는 음식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원우들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게임들을 준비하였다. 공부하느라 지친 원우들과 학우들은 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도 하였고 게임도 하였으며, 상품도 받아가면서 잠시 본업인 학업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오후에는 '예랑음악제'가 진행되었다. 1부는 찬양사역자 강찬의 공연으로 시작하였다. 찬양사역자 강찬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힘찬 찬양을 들려주었고,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사역자 강찬의 삶의 어두웠던 순간과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2부는 학우들과 원우들의 음악제가 실시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신학과에 권정후 교수, 양

신혜 교수, 사회복지과에 김광수 교수, 음악과에 박준향 교수, 민호기 교수, 이재경 교수가 심사를 해주었다. 예랑음악제는 총 12팀이 출전하였다. 12팀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음악을 가지고 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우들과 원우들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 예랑음악제 입상자는 3등 김예솔 학우, 2등 신대원 1학년 중창, 1등 김성엽 학우가 수상했다. 처음으로 하는 '예랑제'라 어렵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대신대학교라는 이름 안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교제한 뜻깊은 행사였다.



신학대학원 이상현 기자

### (사회복지학과)



2017년 9월 29일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랑제가 개최되었다. 시작전 본관에서 간단한 축제

개막식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학부에서는 점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컵밥을 준비했고 염통구이, 음료 등의 간식거리도 준비하였다. 음식은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쿠폰으로 교환해서 판매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상담영여학부가 같이 준비한 먹거리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함께 음식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즐겼다. 우리는 먹거리로 인한 수익을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되었다. 먹거리 축제가 끝난 후 본관 4층에서 예랑음악제가 진행되었다. 우리 과에서는 민승원 학우가 '고백'을 불렀고, 정성훈 학우가 'puzzle'을 불렀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보여주었다는 것에 우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었다. 모든 학부가 함께 했기에 더 보람차고 즐거운 축제였다.

사회복지학과 김영환 기자

### (음악과)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랑제가 열렸다. 오전에는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점심시간에는 각 과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음식과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음악학부에서는 떡볶이, 콜팝, 샌드위치, 믹스커피, 아이스티 등 여러 먹거리로 점심을 준비하였다. 우리들은 전 날부터 장보고 새벽까지 재료 준비를 했다. 함께 준비하며 고생한 학우들이 없었다면 당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점심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밀리는 주문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었지만 불평 없이 기다려준 대신대학교 학우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갈 만큼 바빴지만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오후에는 예랑 음악제가 열렸는데 음악학부에선 김성엽(2학년) 학우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다. 김용훈(2학년) 학우는 'Swing baby'를 부르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김성엽 학우가 1등을 해 음악과에 큰 기쁨을 주었다.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고 무대를 즐기면서 평소 잘 마주할 수 없었던 타과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음악과 강운유 기자

### (신학과)

2017년 9월 29일(금) 본교에서 예랑음악제가 개최되었다. 먼저 예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에는 각 학과별로 부스를 설치해 여러 가지 먹거리를 준비했다. 우리 신학과는 추억의 달고나를 준비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오후에는 음악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학과에서는 이재우 학우가 '항해자'를 불렀고 안병경 학우가 '이제는 내가 없고'를 불렀다. 또한 박정인 학우가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음악제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이후 시상에서 이재우 학우와 박정인 학우가 수상했다. 바쁜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축제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과별 활동이나 단합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더욱더 풍성한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 예배음악 바로알기 교회음악 세미나

인/터/뷰

##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 신학과 권효중 -

대신대학교 교회음악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찬양을 부를 때 발성의 문제나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철규 사역자'를 통해서 알고 있던 방법과 다른 방법들을 배우면서 도움이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컬 세미나에 참여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연습과 노력으로 낮은 음을 부르는 사람이 높은 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치인 사람도 연습과 노력이 있으면 노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고 난 후 저는 배운 것을 교회 싱어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부 청소년들이라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싱어들의 연습을 통해 목소리가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교회 건반 반주자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세미나를 통해 몰랐던 것을 배움을 통해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다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저희 교회 가운데 변화를 주었고 찬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찬양팀 전체가 함께 참석하여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 10월 14일, 대구 동부교회에서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음악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음악 세미나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실제 교회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예배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 교회음악 세미나에는 전공자가 아님에도 해야 하는 찬양인도에 부담을 느끼신 목회자들, 교회에서 새롭게 찬양 인도를 맡아 첫걸음을 떼는 예배인도자들, 다양한 편곡과 리듬, 화성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싱어들, 찬양 예배 반주에 사용되는 키보드와 신디사이저 활용이 어려운 건반 연주자 또는 세컨드 연주자들, 노래와 연주로 찬양하는 일에 관심 있는 중·고·대학생, 성도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다. 강의는 예배를 세우는 보컬 클리닉, 찬양팀 건반 연주자를 위한 A-Z, 찬송가 찬양 인도 법으로 진행했다.

먼저 '예배를 배우는 보컬 클리닉' 강사로는 그룹 '해리티지'의 솔리스트 이철규 강사와 찬미 워십 대표를 맡고 계신 민호기 목사가 수고하여 주셨다. 이 강의에서는 찬양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컬 스킬, 현

대 예배 음악에서 쓰이는 방법, 보컬로 곡을 리딩하기, 애드리브 방법, 화음 넣기와 다양한 보컬 편곡 법, 마이크 사용법과 무대매너를 주제로 예배 인도자뿐 아니라 평소 보컬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찬양팀 건반 연주자를 위한 A-Z'는 메인 건반과 서브 건반의 역할 분담, 매력적인 서브 건반 반주 법, 우리 교회 키보드 100배 활용하기, 기본적인 화성학 강의를 순서로 예배에서 사용되는 곡의 실제적인 적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강사로는 양희정 강사, 이해전 간사가 수고하여 주셨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찬양인도 법'에는 김성빈 교수와 이재범 목사가 강사로 힘써주셨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를 잇는 은혜 충만 콘서트 만들기, 찬송가 레퍼토리 적극 활용으로 세대 통합 예배드리기, 짧은 시간을 100배 활용하는 찬양인도의 노하우 등을 주제로 알찬 강의를 들려주셨다. 이 날 약 150명 가까이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대신대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음악과 강은유 기자

# 4년을 마무리 하며 음악학부 졸업연주회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음악학부 졸업연주회가 열렸다. 클래식 11명, 실용음악 10명으로 총 21명의 졸업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11월 13일 저녁 5시 클래식 졸업연주회가 대신대학교 안에 위치하는 심포니아 홀에서 열렸다. 이 날 연주회는 피아노, 성악, 오카리나, 플룻, 오르간까지 클래식 안에 소속된 모든 전공생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르간 박경미가 보엘만(L. Böllmann)의 오르간 곡 수트 고딕 제4장 토카타(Suite Gothique IV. Tocata)를 연주했다. 현란한 멜로디와 웅장한 울림으로 공연의 서막을 열기에 충분하였다. 오르간이 생소한 사람들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연주였다.

목소리를 악기로 삼은 소프라노 이윤희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를 불렀다. 이 곡은 푸치니(G. Puccini)의 곡으로 오페라 스키키(G. Schicchi)의 아리아이다. 비교적 짧고 높은 고음은 없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 많은 소프라노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이탈리아로 적힌 이 곡은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청년과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조르는 내용이다. 소프라노 이윤희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애절함을 보여주었다. 대신대학교는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카리나 전공생을 발굴하는 학교이다. 이번에 졸업을 앞둔 오카리나 장민석은 모차르트(W.A. Mozart)와 이루마 곡으로 무대에 꾸몄다. 오카리나 악기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카리나로 전공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카리나 연주하는 긴 순서에 신선함을 안겨주는 무대가 되었다. 졸업연주회는 6시 30분이 되고서야 막을 내렸다. 이 날 연주회에는 약 90명 정도의 관객들과 음악학부 교수들, 최대해 총장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음악창작소에서 실용음악 졸업연

주회가 열렸다. 약 10명의 출연진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베이스 기타, 재즈피아노, 드럼, 일렉 기타, 워십리더, 보컬 등 여러 종류의 무대를 다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든 무대들이 재미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무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보컬 최우혁 학우의 무대이다. 그가 부른 곡과 곡의 그룹을 잠시 소개하자면 펜타토닉스(Pentatonix)라는 미국의 아카펠라 그룹이고 The Sing-Off 시즌 3의 우승 그룹이다.

신기하고 환상적인 뮤직비디오를 곁한 펜타토닉스의 다프트 펑크(Daft Punk)는 프랑스 듀오 다프트 펑크의 6곡을 모아 편집한 곡이다. 보컬 최우혁은 이 곡으로 아카펠라 형식의 무대를 꾸밈으로써 관객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빠른 전개로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이 무대는 펜타토닉스라는 신선한 그룹을 알게 해준 고마운 기회였다. 이 날 졸업연주엔 많은 관객들이 호응으로 이들의 노력에 답해주었다. 양일 동안 진행된 졸업연주에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과 연주자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음악과 강은유 기자

## 작고 불편한 예배

# 워십리더집회



2017년 10월 12일 작고 불편한 예배가 열렸다. 올빛교회에서 진행된 첫 집회는 워십리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드러지는 찬양 예배이다. 신설 학과인 워십리더 전공은 현재까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9명이 재학 중이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이들은 이 무대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는 시작됐다. 7시 30분을 조금 지난 시간, 예배당은 암전이 되었다.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영상에는 예배에 임하는 이들의 다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예배의 첫 곡은 '성도여 다 함께'라는 찬양이었다. 담백한 오프닝 멘트로 자연스럽게 무대는 열렸다.

G#E b'하나님(G)을 높이고(#) 나 자신(E)을

낮춘다(b).라는 이름으로 단상에 오른 이들은 전심으로 예배를 이끌어갔다. 여러 명의 리더가 같은 마음으로 담담히 고백을 이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자신의 고백을 선율에 녹인 자작곡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껏 듣지 못했던 그 두 곡을 소개해 보려 한다.

'예배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로 나의 예배 라는 곡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진하람 학생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쓴 곡이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담긴 노래이다. 길지 않은 곡이었지만 예배의 참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Ask(구하라) Seek(찾으라) Knock(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8절)'

두 번째로 'A.S.K' 라는 곡은 졸업을 앞둔 김부광 학생이 위 말씀에 감명을 받아 작곡한 '누

구를 의지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곡이다.' 이 가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이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마음에 다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약 80명이 함께한 예배는 작고 불편하기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워십리더 전공생들의 첫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을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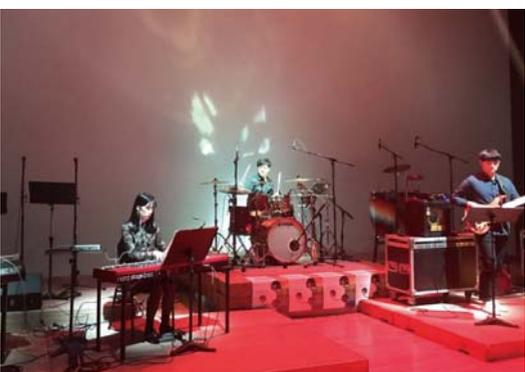
음악과 강은유 기자



# 한국교회의 새로운 예배음악을 이끌어 가다

## 실용음악 정기연주회

한국교회의 새로운 예배음악 패러다임을 이끄는 대신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와 찬양사역 전문교육기관으로 음악목사, CCM 가수, 예배인도자, 찬양팀 사역, 찬양 디렉터 및 전문 연주자로서 음악과 신학,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찬양사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음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창조적으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작곡과 편곡 교육에 중점을 둔다. 안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밖으로는 기독교적 마인드를 세상에 외치는 훈련되고 헌신된 음악 사역자를 세워 간다.



2017년 10월 31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제7회 대신대학교 실용음악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 날 약 25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연주회는 듀엣곡부터 시작해 자작곡, 팝송, 발라드 어느 장르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맛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무대 위 뿐만 아니라 무대 뒤, 스크린, 안내 등 무대에 서지 않는 학생들이 그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공연에는 약 148명의 관객이 참석하였다. 자리를 함께해준 많은 사람들은 연습실이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열심히 한 그들에게 큰 박수로 보답하여 주었다.

음악과 강은유 기자

### 인터뷰

#### 워십리더(2) 김성엽

처음으로 진행을 맡게 되어 기뻐다. 하고 싶어서 맡은 진행이기에 보다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아나운서 동영상 보고 따라하고, 틈틈이 이미지 트레이닝도 했다. 나의 무대는 없었지만 교수님들께서 입을 모아 칭찬을 주신만큼 연주회를 빛내서 참 행복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 내년에도 한다면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 보컬(4) 임예진

음악에 대한 아쉬움에 무작정 편입한지 벌써 2년. 학교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학기여서 아쉬운 기분도 든다. 나는 다른 장르를 오랜 시간 배우다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보컬을 배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 보컬의 경우는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좀 더 컸던 거 같다. 다른 전공으로 편입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는 부족함이 많은 나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셨고 받은 스트레스들을 날려버린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시대를 열다

## 국제 교류원

2017년 대신대학교에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국제 교류원이 개설되었다.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모집한다.

먼저 국제 교류원은 처음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입문,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각 반마다 전문 강사를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3개월, 6개월마다 정기시험을 시행하며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다음 등급의 반으로 등반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다.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토픽 2, 3급 자격증을 발급하며 4급까지도 가능하다. 국제 교류원을 졸업(수료)한 후 학생들은 다른 전문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나

라로 돌아가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업에 취업해 활동할 수 있다. 원한다면 학사·석사과정까지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 교류원은 많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꿈을 키우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사회복지학과 김영환 기자



# ❖ 우리 함께 하나 되어 ❖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11시에 대신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정현재 강사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현재 강사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요즘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 바뀌지 않는 추세이다.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은 법보다 더 크며

제일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개개인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장애인들을 존중하며 작은 배려를 실천할 때 장애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원해서는 안 되며 나 자신도 스스로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과 김영환 기자



# 사랑으로 돕는 우리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는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이다.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는 주기적으로 교외 봉사를 실시한다. 헌혈, 바자회, 야외 청소 등 다양한 봉사를 진행한다. 디아코니아 동아리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대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봉사

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소통을 하며 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다. 이번에 우리는 11월 11일 토요일에 이마트 희망 바자회를 실시했다. 바자회를 통해 물건을 팔고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번 봉사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로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여러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내봉사보다는 교외봉사가 더 활동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며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디아코니아 동아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봉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과 김영환 기자

# 나만의 자서전 남기기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 프로그램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본교 본관 1층 세미나실에서 박명철 교수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의 책을 소개하며 작가의 의도와 글쓰기 방법에 대

하여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남겨야 할 것을 발견하고 남기는 것이 나의 가치를 남기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또한 책 해독하는 사람의 주인공을 소개하며 내가 누구에게 사랑 받았으며, 누구를 사랑했고, 누가 나에게 감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성장에 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 바이블 아카데미 교사세미나 다시 기본으로 “종교 개혁 정신 회복”



2017년 10월 23일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대명교회에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주관으로 바이블 아카데미 교사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다시 기본으로 - 종교 개혁 정신 회복”이다.

첫째 주는 이상혁 교수의 역사를 품은 기도, 둘째 주 박윤만 교수의 오직 성경과 해석, 셋째 주는 권정후 교수의 이신 칭의 다시보기, 넷째 주는 양신혜 교수의 구원의 서장 회개, 다섯째 주는 황봉환 교수의 개혁주의 5대 슬로건으로 이루어져있다. 교회와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씀의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 받고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 제4회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세미나 역사와 문화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신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대신대학교 부설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신학과 권정후 교수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최대해 총장의 인사 후 첫 번째 순서로 내일교회 부목사인 송선관 목사가 “종교개혁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발표했다. 돈은 수단 중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우리를 질식시키기 전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순서로 대구경북기독교 역사연구회 회장이고, 달서교회 담임목사인 박창식 목사가 “스코틀랜드 제2차리서서 목회적 읽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식 목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는 장로교인의 자세이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순서로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라은성 교수가 “개혁과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개혁신앙의 역사는 500년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중세 1,000년 동안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개혁신앙인들의 숭고한 신앙고백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며 조상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후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편집장 김신향

## 제6회 성지언어연구소 심포지엄 성경사본, 초기 기독교의 책, 그리고 기억



지난 9월 11일 월요일 대신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대신대학교 성지언어연구소 주최로 “성경사본, 초기 기독교(2~3세기)의 책,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강의를 들었다.

먼저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전승과 비평’을 주제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사본학을 전공하신 김하연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다. 김하연 박사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현상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본들간의 불가피한 오류들이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말했다. 더 나은 성경본문의 정확성을 위해 방대하고 기술적이며 전문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으로 서로 토론하였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베자사본(D)의 신학적 경향’을 주제로 고신대학교 신약학 송영목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다. 송영목 교수는 베자사본의 출처와 신학적 경향을 밝히려면 사본학에 관한 연구와 베자사본이 필사될 당시 5세기의 교회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자사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2~3세기)의 책 이해: 코텍스 선택의 배경의 의의’를 주제로 대신대학교 신약학 박윤만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다. 2~3세기의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을 근거로 코텍스를 선호한 배경과 이유를 발표했다. 이것이 예수와 사도들의 의사소통 전통과 신약성경의 신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했다.

마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열정적인 사람들의 질문으로 뜨거운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런 행사들이 자주 개최되어 목회자나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강의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편집장 김신향



# 칠십인경과 알렉산드리아<sup>1)</sup>



우상혁 교수  
(신학과 논단)

**1. 들어가는 말**  
칠십인경이란 주전 3-2 세기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가리킨다. 칠십인경은 기독교의 모태가 된 초대 교회에서 율법주의, 기독교 신학의 정초를 놓았던 교부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일 뿐만 아니라, 칼빈(J. Calvin)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며 읽었던 성경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를 비롯한 근동 지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가던 국제화된 도시였으며, 이곳은 당시 국제 공용어라 할 수 있는 헬라어가 통용되던 곳으로, 당대 헬레니즘의 요람이며 문명의 중심지였다. 바로 이런 곳에서 칠십인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일은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을 만날 수 있도록 빛장이 열린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종교가 세계화되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넓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준비 단계였다. 이런 차원에서 알렉산드리아는 문명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구약성경의 번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도시이다.

## 2.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

알렉산드리아의 역사적 배경에 앞서 먼저 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유대 회당에서 의전적(liturgical) 목적, 둘째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알렉산드리아 거주 2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셋째는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에서 유대 율법 소장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유대 회당용 목적과 왕립 도서관의 필요라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는데, 의전적 목적과 신앙교육 목적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유대 회당의 필요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 2.1. 알렉산드리아 유대 회당용

### ㄱ. 의전적(禮典的) 필요

테크라이(Thecra)는 주장하기를 히브리어 경전의 헬라어 번역은 알렉산드리아 헬라 유대인들의 의전적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였다. 즉,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려 헬라어 성경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회당에서 경전을 필요하였다면 적어도 오경이나 시편 전체가 필요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 ㄴ. 신앙교육 목적

브록(Brock)은 이집트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하였지만, 이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경전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 또한 나름 초기 유대교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유대인들은 교육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 2.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보관용

주전 2세기경 쓰여진 아리스테아스(Aristea) 서신은 칠십인경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 서신에 의하면 모세 율법의 번역은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서신에서 전하는 왕립 도서관을 위한 칠십인경 번역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알렉산드리아 왕립도서관장 이던 데메트리오스가 도서관 보관용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서 번역을 제안하며,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원한다고 밝히고 번역자의 편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 3. 칠십인경과 알렉산드리아

### 3.1. 역사적 배경 :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전 332년 알렉산데는 이집트를 정복하였고 331년 그의 이름을 받들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원래 이 지리는 라코사(Lakotis)라는 조그만 부락이었다. 323년 알렉산데르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부하 장수였던 라코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새 주인이 되었다. 그는 306년 왕으로 등극하여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되어 새 왕조(라기드 왕조)를 일으켰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리아에 화려한 궁전, 신전, 등대, 박물관, 도서관 등 많은 건축물을 세웠다. 이 가운데에서도 등대와 도서관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다. 등대를 설계한 이는 크니드(Knide)의 소스트라트(Sostrat)이며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등대의 모퉁이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명에도 거졌다고 한다. 이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800달란트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 등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물의 하나로서 지중해 일대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이 등대는 피로스(Pharos) 섬에 세워졌는데, 피로스 섬은 육지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이 섬과 육지 사이에 방파제가 설치되어서 걸어서 왕래가 가능했다. 당시에 이 방파제 좌, 우에 베틀이 정착할 수 있었고 원래는 방파제의 폭이 좁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혀졌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대로 아리스테아스 서신에 의하면 바로 이 피로스 섬이 칠십인경을 번역하였던 곳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당시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터어키촌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원래는 방파제에서 시작하여 확장된 자리이다. 알렉산드리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라코티스와 신가지로 불릴 수 있는 브루키온(Bruchion)이 있었다. 피로스 섬에도 조그만 부락이 형성되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아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새로 건설된 거의 모든 건축물은 브루키온에 있었으며, 이 신시가지에는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명물로서 피로스 섬에 세워진 웅장한 등대는 밤에 베틀의 항해를 인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당시 헬레니즘 문명을 선도하던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으로 광장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당시 지중해 연안과 구 페르시아 지역의 모든 생산물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특별히 밀과 직물 산업이 알렉산드리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나일강에서 끌어들이던 물을 보관하는 거대한 지하 상수시설이 도시 내에 여러 개 있어서 시민들에게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사회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주전 320년에서 19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였는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의 이집트 왕래는 꽤 잦았고 이후 안디옥의 주인 셀레시드(Selucid) 왕조의 지배 아래서도 이러한 교류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주전 30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Augustus)에게 정복되어 로마제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로마가 정복하였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인구는 9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만약 칠십인경 번역 작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다면, 번역에 필요한 안피저, 잉크 원료 그리고 번역자의 손에 쥐여졌던 펜대 등의 기본적 재료들은 지중해 각지에서 출발하여 피로스 섬 등대의 안배를 받아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정착한 배에 실려 들어온 물건이었을 것이다.

### 3.2 사회적 배경 : 이집트 아주 유대인

유대인과 이집트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중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접촉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며 이후 요셉의 가족들이 이동하였고 몇 세대가 흐른 후 이들은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 모세의 지도하에 백해를 피해 이집트를 빠져 나온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책에 반대하여 이집트에 일시적으로 망명을 가 있기도 하였고 남왕국 유다 또한 이집트와의 관계는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열왕기서나 예레미야서 등에서 전하는 여러 정황으로 고려해 볼 때에, 이스라엘인의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집단적 이주가 주전 587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참고, 렬44:1, 46:14).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에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312년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데메트리오스 폴리오르케트를 가자(Gaza)에서 승리하여 이집트로 개신할 때에 대제사장 에벤키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오었다고 한다. 아리스테아스 편지에 의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이집트에 십 만의 유대인이 있었고 이중에서 삼만 명이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에서 군인(용병)으로 일했다고 한다. 주전 170년에 오니아스 4세는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오니아스 3세가 암살된 후에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6세(181-145)는 그에게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의 남쪽 혹은 서쪽에 오니아스의 영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는 여기에 레온토폴리스라는 도시를 세우고 유대인 자치 군대를 조직하여 사령관이 되었고 성전을 건설하고 자신의 왕조를 만들었다. 그가 세운 성전은 기원후 70년에 해위원정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Vespasian)의 지시에 파괴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특징 거주지가 있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5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지역은 알렉산드리아 제 4구로서 버넛가를 마주 보고 있었지만, 배가 드나드는 항구는 아니었고 오늘날 개항의 유대인 게토(ghetto)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고 회당은 도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법률적, 재정적으로 독자적인 위임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 공동체가 독자적인 사법 체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 법률이 헬라어로 번역된 토라가 아니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 공동체는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을 모형을 삼은 것이다. 장로 위원회는 게루사이(Gerousia)라 불리었고 71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에프나르케(Ethnarque) 백성 + 권력라 불리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책임자가 유대인 공동체를 지도하였고 그는 이 공동체의 최고 재판관이었으며 유대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일시적으로 에프나르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내적 결속력과 재정력이 뒷받침 된다면 에프나르크의 의지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는 독자적으로 유대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할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기도 했지만, 최초의 빈유대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초기에 이집트의 그리스 종교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마네톤(Manethon)이 헬라어로 편찬한 '이집트의 역사'는 책에서 중요한 증거로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집트 거주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퍼져나가기도 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이집트 정복 이후에 몰려 온 유대인이 누렸던 특권과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이집트 사회 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 대 민족과 융합되기를 꺼려하는 이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아마도 이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경제 활동에서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불러일으킨 질투심이 그 원이기도 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비록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로 된 경전을 읽는 이도 있었지만 주전 3세기부터 헬라어에 많이 동화되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유대 거주자들은 헬라어로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도 하였고 예루살렘에 관한 시를 짓기도 하였고 구약의 비극적 이야기를 쓰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플라톤이나 스토이즘은 그들의 선호 대상이기도 하였다. 주전 2세기경에 아리스토틀(Aristotle)은 마카베 2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185-146)에게 오경의 알레고리적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주석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차후에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는 이 학교의 방법론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이집트 거주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의 헬라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용병으로 있었고 그들의 전투적 용병성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 특히 유대인들이 종사하였던 주요 수공업 분야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직물업과 보석기공업 등이었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고 꽤 이름을 낸 지식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헬라어로 작품을 썼는데, 철학자로서 아리스토틀(Aristotle)과 필론(Philon), 역사가로서 데메트리오스(Demetrios le Chronographe), 비극시인으로 에즈키엘(Ezekiel), 소설가도 있었다.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의 지적 활동은 히브리어 경전을 헬라어로 소개하고자 충동이 생길 수 있는 지적 분위기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번역 팀이 오지 않더라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 구성원은 독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물질적, 지적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헬라어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지만 히브리어 능력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가 번역을 감당할 재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리스테아스 서신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서 번역 팀이 왔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는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헬라어가 능숙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헬라 문화에 예 대한 동화가 곧 히브리어에 대한 상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 3.3. 문화적 배경 : 박물관과 도서관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Soter 주전325-285)는 통치 말년에 학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였고 세계 각지의 유수한 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각지에서 기하학, 천문학, 의학학, 역사가, 비평가, 언어학자,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왕립 박물관 소속되어서 왕으로부터 직접 녹을 받았고 왕이 제공하는 안락한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며 박물관 내외의 시설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과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되었기에, 이들은 집단생활과 공동 식사를 하면서 오로지 학문을 위하여 연구와 토론과 강의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은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축을 담당하는데 있어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학자들의 필요한 자료와 시설물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왕실 공무원도 있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질과 양을 자랑하는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박물관 부설 식물원과 동물원이었으며, 이것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곳으로 학문을 위한 연구 환경으로서는 최적이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부터 사기꾼 및 학자들로 구성된 소수파가 알렉산드리아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환대를 받았을 것임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아리스테아스 서신에서 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번역팀이 초청을 받았을 수 있으며 이들은 왕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며 넉넉한 물질 삼적 지원하에 번역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헬라 세계에서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영광》이라는 책을 저술한 파르손스(Parsons)는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박물관은 팔레르 데메트리오스(Demetrios of Phalere)의 탁월한 능력과 그의 제안에 힘입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에게 의해서 세워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의하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정치기이며 학자였고, 그의 왕위를 계승한 이들과 손자들도 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책과 학자들을 모으는데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책 수집을 위한 관원을 따로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책 구입을 위해서 세상 구석 구석까지 다니게 했다고 한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 구입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자, 페르가메(Pergame), 시리아의 안티옥(Antioch), 시라쿠스(Syracuse)의 책 판매업자들과, 특히 당시 서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아테네와 로데스(Rhodes)의 많은 책 중개업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프톨레마이오스 에베르케트(Ptolemaee Evergete)는 아테네로부터 안셀모스(Anselm) 리쿠르그(Lycurgue 주전 390-324)가 엮은 그리스 3대 비극을 15달란트의 보충금을 받고도 빌렸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원본을 필사한 후에 원본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원본을 돌려주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케하고 베긴 필사본을 아테네로 돌려주었다. 물론 그도 보충금 15달란트를 돌려받지는 않았다. 단편적이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와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얼마나 문학, 예술, 학문을 사랑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이런 분위기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예루살렘의 율법서도 탐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당대 문학의 정수라는 그리스 희극이 15달란트였다면 아직 세상에 썩 알려지지도 않았을 유대민족의 율법서를 번역하는 경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금액이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은 그리스 문학의 주요 저작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이집트 역사를 기록한 마네톤(Manethon, 주전 3세기에 살았던 이집트 성전의 제사장의 저작물)과 비블론 마르쿠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베로즈(Berosus)의 비블론니카도 소장하고 있었다. 파르손스가 번역한 인도 비문에 의하면 인도의 책들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들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두 개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칼리마크 시대(주전 235년)에 알렉산드리아의 두 개의 도서관 가운데 대형 도서관에는 49000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으며, 소형 도서관(Sepapit)에는 42800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결국 두 개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큰 도서관과 작은 도

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큰 도서관은 왕궁터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왕립도서관이라 소개하며, 다른 하나는 세라피스(Serapis) 성전에 부속되어 있었기에 흔히 세라피스 도서관이라 부른다. 이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왕립 도서관은 주로 학자들이 많이 이용했다면 세라피스 도서관은 일반 대중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도서관이었다. 이 두 도서관은 책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왕립 도서관은 벽 앞에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꽂는 아리스토틀레스 방식이었다면, 세라피스 도서관은 벽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책을 정리하는 이집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후 2세에서 3세기에 세워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세워진 도서관들 가령, 페르가메(Pergame)의 아스크레피아에이온(Asclepion), 에베소(Ephese)의 무세이온(Museum), 누미디에 지방의 팀가드(Timgad)에 있는 베테란스(Veterans) 도서관 등은 모두 이집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칼리마크는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에서 직접 작가와 작품을 분류한 체계적인 도서목록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이 목록은 피니카스(Pinaks)로 불렸는데 당시 학자들에게 연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도서관에서는 호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 문학 작품의 비평문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문학 작품의 정경화라 할 수 있는 작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다. 만약 유대 경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다면, 아마도 번역 이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은 히브리어 율법서를 소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반드시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문비평 수준이 꽤 높은 풍토에서 번역이 되었다면 번역 대본을 선택하는 데나, 번역 작업에 있어서 나름의 방법과 기준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알렉산드리아 왕립도서관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파르손스는 피피리우스(Oxyrhynchus 1241)를 분석하여서 초대 도서관장부터 8대까지의 명단을 작성했다. 대부분 왕립 도서관장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거나 작가였다. 주전 47년 클레오파트라 통치 당시에 로마 시자(Cesar)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알려진 마지막 도서관장은 드니(Denys 주후 68년에서 117년)이며 그 이후에는 누가 도서관장직을 맡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주후 39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왕립 도서관과 세라피스 도서관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 3.4.언어적 배경

#### ㄱ. 아람어

이집트에서 아람어의 사용 정도를 아는 것은 칠십인경 번역자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대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대 문헌과 비문 등의 연구를 통해서 주전 3 세기 경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일상어가 아람어였음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집트로 건너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공히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 ㄴ. 히브리어

포로기 이후에도 히브리어는 소멸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히브리어가 구어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경이 번역되었던 주전 3세기에서 주전 1세기까지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사용되자이기는 했지만 그 사용자는 소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사람은 소수층이었다. 그럼에도 히브리어는 무시할 수 없는 언어였다. 이는 유대인들이 친숙하였던 토라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아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사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 ㄷ. 헬라어

알렉산데르 대왕의 지중해 연안과 근동 지방 정복 이후에, 헬라어는 그리스 문명의 문화적 매력과 함께 그 보급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헬라어 사용이 꽤 확산되어 시골에서도 아람어를 위협하는 언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발달된 비문이나 비문의 상분의 이 정도가 헬라어만큼은 기록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아리스테아스의 진술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피건된 번역팀들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알았다. 로마인들이 들어온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사회 계층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친숙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헬레니즘의 위력은 일찍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과는 상황이 다르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였다. 1세대 이후의 이집트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어는 거의 일상어가 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남긴 일부 피피리우스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아주 유대인들은 일찍이 그리스식 생활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이 얼마나 빨리 헬라어에도 익숙해졌는가를 말한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종교 전통 문헌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아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능력이 어뻤하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사용한 그리스어는 부분적으로 이집트의 당시 토착어였던 콤투어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한다. 아무튼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헬라어는 결국 신약의 언어가 되었다.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의 역사, 사회, 문화, 언어적 배경을 살펴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칠십인경 번역된 전반적 배경을 알아볼 수 있다. 한때 초대교회에서 구약 성경으로 알려졌던 칠십인경의 탄생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사회, 문화와의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칠십인경이 번역되던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칠십인경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칠십인경은 기독교 복음이 헬라 세계에 전파되는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문명의 중심지로서 문화의 도시였으며, 도서관과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칠십인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문화와 성경 번역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1) 신학지평 21 (2008) 215-234에 실린 글을 요약.

# 2017년 1학기 대신발전기금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대학교는 이 도움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지역 교회 부흥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문·경건·사랑  
대신대학교 개혁신학과 신앙의 요람  
DAESHIN UNIVERSITY

###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 후원계좌번호

- 농 협 : 761-01-144235 (예금주 : 대구신학원)
- 농 협 : 301-0144-8182-21 (예금주 : 대신대학교)

※ 제 공 :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 여러분의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원하시면 대신대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053-810-0808

## ▶후원금 현황 (참여기간 2017. 03. ~ 2017. 08.) ▶총 후원금액 : 214,000,695원

### 노회 및 단체

가천산업사 경안노회 경중노회 경청노회기독교장년면려회연합회 복음장학회 (주)창대건설 총회교육부 (주)풍진

### 교 회

가창교회 경산교회 경산삼성교회 경산중앙교회 경애교회 계당교회 고산중앙교회 광명교회 구미상모교회 구미서부교회 길안중앙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낙산교회 남원교회 내일교회 달서교회 대구대동교회 대구대성교회 대구대영교회 대구동부교회 대구동성교회 대구목자교회 대구부광교회 대구삼성교회 대구서문교회 대구서부교회 대구성서교회 대구성일교회 대구수산교회 대구영신교회 대구칠곡중앙교회 대구평안교회 대도교회 대명교회 대봉제일교회 대울교회 대흥교회 동막교회 동산교회 동신교회 동행교회 드림교회 만성교회 박사교회 반계교회 반야월서부교회 반야월중부교회 봉덕교회 북성교회 북일교회 사수교회 삼양교회 서대구교회 서성로교회 설화교회 성광교회 성덕교회 성도교회 성서중부교회 성암교회 성원교회 성주중앙교회 소망교회 수성로교회 시온교회 신일교회 신천교회 안심교회 열린문교회 영광교회 영주교회 영천동부교회 예일교회 오촌교회 온세상교회 와촌교회 왜관교회 울산반석교회 울산서현교회 은평교회 의성교회 의승교회 이가교회 이서교회 점촌제일교회 주안교회 진주성남교회 청도대성교회 초곡교회 큰숲교회 탐리교회 태평교회 파동창대교회 포남교회 포항지구촌교회 풍기제일교회 하양교회 행복한우리교회

### 개인후원자

Ajay Kumar arjyal 갈경순 강경미 강경숙 강경희 강계태 강광술 강대웅 강병애 강병수 강복례 강사라 강순금 강영균 강영숙 강원진 강은경 강은수 강은전 강아환 강인구 강정현 강창미 강창진 강필욱 강혁주 강현숙 고용환 고정미 고주석 고호림 공구숙 공동현 광명숙 광무생 광순석 광인현 광충원 광태연 광해정 구금화 구명보 구분수 구분의 구서균 구순옥 구자덕 구장희 구정순 구형숙 권경도 권경찬 권기조 권나현 권명희 권병복 권사무엘 권성민 권수남 권수형 권순자 권영미 권영복 권영아 권영조 권용기 권의열 권정애 권정열 권진혁 권태범 권태웅 권해연 권현숙 권현옥 권현주 권형철 금은주 김경 김경대 김경란 김경숙 김경순 김경자 김경호 김경환 김경희 김판식 김광배 김광석 김광수 김광식 김광욱 김규리 김규형 김규환 김금옥 김금자 김기현 김길수 김길순 김나나 김남영 김남희 김년호 김다정 김대수 김대식 김대현 김택선 김도훈 김동철 김말희 김명남 김명숙 김명순 김명애 김명옥 김명철 김명희 김묘선 김문락 김미선 김미숙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혜 김미희 김민련 김민지 김복녀 김복란 김복수 김복자 김봉연 김봉열 김봉출

김분남 김분노 김분자 김상규 김상목 김상미 김상봉 김상숙 김상윤 김상의 김상화 김서경 김석철 김선영 김선옥 김선웅 김선철 김선희 김성구 김성빈 김성수 김성실 김성은 김성일 김성준 김성현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업 김세영 김세정 김소옥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수현 김순남 김순덕 김순란 김순래 김순례 김순애 김순창 김승동 김승준 김시창 김시현 김신경 김신욱 김신희 김애란 김애옥 김양희 김연희 김영규 김영길 김영림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옥 김영자 김영진 김영화 김영희 김예은 김옥 김옥복 김옥선 김옥이 김옥자 김요한 김용배 김용숙 김용준 김용필 김용호 김용희 김용희 김운학 김유경 김유신 김윤경 김윤금 김윤옥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의진 김익순 김인규 김인수 김인홍 김인화 김인환 김지준 김장수 김재선 김철출 김정규 김정남 김정민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 김정에 김정옥 김정자 김정진 김정한 김정해 김정희 김종갑 김종례 김종숙 김종신 김종우 김종원 김종평 김중해 김중환 김주식 김주은 김주필 김주희 김중석 김지애 김지영 김진숙 김진실 김진일 김진홍 김진희 김차남 김차수 김찬연 김찬조 김창권 김창균 김창수 김창엽 김창완 김창희 김채영 김찬일 김철수 김춘연 김춘옥 김춘희 김태돌 김태선 김태영 김태웅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희 김필선 김하람 김학권 김학동 김한기 김하나 김한수 김해선 김해숙 김현덕 김현숙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형권 김형미 김형일 김형호 김혜란 김혜영 김혜정 김호건 김홍욱 김홍진 김화선 김희성 나복선 나체득 남궁면 남대하 남동자 남명혜 남미임 남성진 남옥이 남주현 노경서 노선영 노승욱 노연주 노은성 노진봉 노창수 노현우 도경애 도미향 도병환 도춘희 라제스 류경림 류기옥 류명희 류무재 류민 류병남 류정현 류정희 류준식 류진교 류현정 마정숙 명예영 명일택 문금희 문무출 문미현 문상조 문소영 문수업 문영석 문예진 문정미 문정주 문태희 민경옥 민경원 민세홍 민수정 민정희 민천식 박경록 박경미 박경선 박경원 박경일 박경희 박광규 박광일 박광희 박구선 박구조 박근식 박금옥 박금자 박금화 박기순 박남숙 박노숙 박노옥 박노익 박노희 박다은 박동렬 박동승 박두레 박두임 박만수 박명수 박명자 박명희 박무연 박문환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미희 박민균 박민지 박병석 박병연 박복희 박분예 박상국 박상렬 박상민 박상옥 박상주 박상진 박상현 박선영 박선희 박성숙 박성연 박성옥 박성은 박성희 박세환 박수금 박순기 박순남 박순선 박순애 박순임 박승현 박연옥 박영규 박영란 박영만 박영미 박영빈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옥 박영택 박영혜 박영희 박예원 박예진 박요안나 박원권 박원동 박원하 박유경 박유리 박유분 박윤경 박윤만 박윤숙 박윤정 박윤주 박은경 박은빈 박은향 박은혜 박은희 박인순 박임순 박재영 박재훈 박점순 박정숙 박정열 박정원 박정태 박종열 박종진 박종희 박준향 박지영 박진규 박진숙 박찬욱 박창근 박창식 박창일 박찬만 박천순 박춘식 박태민 박태영 박태웅 박태철 박해명 박해옥 박해정 박행임 박현미 박현자 박현주 박혜자 박호완 박화자 박희숙 박희진 박희필 방성일 방옥주 배건호 배경수 배광중 배귀분 배기섭 배다분 배동석 배명분 배분악 배상호 배선화 배세원 배수옥 배연탁 배영오 배영진 배은영 배은혜 배정희 배재욱 배제창 배종화 배지성 배지혜 배하나 배해동 배혜영 배호순 백남승 백성희 백연화 백영애 백용선 백우현 백윤덕 백은주 백주현 백태경 백태승 변동철 변영주 변은아 변진오 변호일 복성례 빈성기 서경자 서경석 서경식 서금희 서길수 서동규 서동성 서만석 서병례 서보천 서상모 서상연 서석수 서삼규 서성표 서수용 서순란 서순분 서여진 서영희 서요한 서원태 서은실 서정숙 서정오 서정진 서제철 서주영 서창용 서해민 서희정 석영아 석진무 석태순 석희숙 설선은 설오진 성기진 성다혜 성명자 성상봉 성성문 성선자 성성용 성숙이 성영순 성옥준 성은혜 소경혜 소병희 손경태 손계내 손기주 손길남 손대영 손명희 손미정 손새이 손석규 손수양 손순자 손순택 손영숙 손영애 손영희 손원규 손은정 손장희 손정춘 손정화 손제구 손주담 손주영 손주진 손춘지 손하은 손호연 송민지 송백선 송석길 송영희 송인문 송인순 송재용 송정옥 송태경 송활신 시진호 신경균 신경심 신경아 신경영 신경옥 신경범 신동주 신명자 신명희 신미경 신성권 신수복 서영태 신영희 신원관 신원균 신유식 신은주 신인숙 신정숙 신정순 신정식 신정원 신정혜 신종수 신진영 신천분 신학근 신해범 신현국 신현중 신현진 신현태 신혜란 심경은 심계화 심미송 심성희 심숙이 심순애 심연순 심은숙 심은희 안미상 안병연 안병훈 안석산 안성민 안소명 안숙향 안인숙 안춘자 안혁희 안현순 안혜선 안화철 양금 양미희 양승혜 양아름 양영숙 양영희 양은숙 양재덕 양태옥 양혜민 여영애 여은경 염규성 예미영 오명숙 오병자 오병옥 오상철 오상희 오성혜 오숙현 오순복 오영림 오은주 오은향 오종 오지연 오창현 오천세 오철태 오태희 오희이 오희진 오희숙 우광하 우덕영 우덕희 우분출 우세진 우영근 우영신 우윤찬 우종철 우주연 우현진 우흥열 원난화 원순태 원애령 원용훈 위상열 유경생 유경자 유경희 유동균 유선경 유송자 유예숙 유재선 유재연 유정순 유정희 유춘자 유해선 유형남 육정희 윤건용 윤경숙 윤경영 윤계수 윤관희 윤광웅 윤대근 윤덕재 윤동훈 윤명희 윤미라 윤성권 윤성혜 윤신평 윤영애 윤영혜 윤예주 윤옥자 윤와숙 윤우분 윤재원 윤정순 윤정혁 윤현정 윤형남 은순희 은종관 이각일 이강남 이경주 이경진 이경호 이경희 이광석 이광순 이광우 이광혜 이광희 이국현 이구분 이구조 이금란 이금자 이기영 이길수 이낙정 이난경 이대봉 이대현 이도화 이동걸 이동경 이동우 이동욱 이동진 이동현 이득수 이말수 이말숙 이망년 이명숙 이명신 이명옥 이명자 이명희 이문희 이마숙 이미영 이미자 이미향 이미희 이민자 이봉진 이부희 이분희 이상구 이상규 이상극 이상돈 이상미 이상복 이상분 이상승 이상옥 이상조 이상천 이상혜 이상희 이석환 이선애 이선희 이성덕 이성미 이성은 이성철 이성택 이성희 이세호 이수향 이숙자 이숙희 이순기 이순옥 이순창 이순현 이순희 이승운 이승호 이신영 이어자 이애스더 이영미 이영삼 이영수 이영숙 이영아 이영옥 이영익 이영자 이영재 이영희 이옥남 이옥란 이옥순 이옥연 이옥자 이옥자 이윤문 이원세 이원태 이원호 이위현 이윤정 이윤종 이윤환 이은경 이은섭 이은실 이은심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인섭 이인숙 이인태 이인혜 이재윤 이재민 이재혁 이재희 이점시 이정관 이정미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민 이정일 이정임 이정화 이종구 이종기 이종대 이종돈 이종맹 이종숙 이종순 이종열 이종원 이종호 이종활 이주선 이주원 이준수 이종근 이진숙 이진태 이차수 이찬수 이찬숙 이찬하 이춘선 이춘자 이철동 이필희 이하경 이하은 이학자 이하란 이해순 이향자 이현미 이현섭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혜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진 이화자 이효대 이희석 이희숙 이희순 임경연 임나현 임만기 임미숙 임선자 임숙이 임옥자 임은복 임재연 임종필 임준화 임치연 임채진 임춘화 임태숙 임필술 임한수 임해순 임혜정 장 총 장 격 장계순 장기태 장란규 장병규 장선혜 장성규 장세영 장순희 장영숙 장옥란 장옥순 장옥희 장원석 장은수 장은주 장의자 장인권 장인출 장재호 장정기 장정옥 장진환 장혜정 장희중 전경숙 전국진 전명숙 전미정 전민아 전삼희 전상훈 전순남 전양자 전영애 전유자 전윤희 전은진 전재규 전재락 전점수 전정두 전종호 전종훈 전대석 전현석 전현숙 전후남 정경자 정경진 정광주 정국성 정기홍 정다운 정동화 정만석 정말숙 정미경 정미라 정미영 정미주 정병일 정복순 정봉영 정상진 정성문 정선숙 정선화 정성근 정성달 정성훈 정수정 정순금 정순자 정순덕 정승용 정승한 정시찬 정신해 정애현 정연민 정연옥 정연옥 정영덕 정영숙 정영일 정요셉 정용옥 정원수 정원희 정운옥 정은숙 정은주 정은화 정은희 정아슬 정인숙 정인정 정인하 정재민 정정봉 정정태 정정화 정정환 정종원 정종찬 정종환 정좌정 정주성 정중화 정진윤 정창숙 정한솔 정해근 정해영 정현숙 정형진 정혜영 정화영 정화자 조경애 조경연 조경혜 조국현 조기동 조남숙 조두현 조말연 조문영 조미향 조성경 조성국 조성일 조성희 조순경 조순자 조승아 조영석 조영숙 조예인 조은덕 조은주 조은향 조인에 조정림 조정숙 조정에 조정에 조종화 조준모 조진환 조혜경 조혜영 조혜정 조후근 주수상 주옥자 주은혜 주재필 주현정 주형숙 주효진 지동춘 지승렬 지영애 지주희 지한구 지화진 진명희 진영태 진은정 차경득 차미선 차미옥 차애경 차인숙 차해경 채경석 채경현 채경희 채동선 채민수 채선규 채성수 채순영 천경자 천경조 천말선 천성은 천옥자 천원석 천종근 최 훈 최경숙 최경신 최경자 최경훈 최경희 최남출 최대식 최대해 최도정 최두근 최말숙 최명화 최무숙 최미자 최미화 최병철 최병현 최보부 최복임 최성호 최성희 최세은 최소연 최소희 최수현 최수희 최순옥 최순임 최양규 최연희 최영규 최영미 최영애 최영택 최영학 최영호 최영희 최옥순 최용길 최우준 최원섭 최원연 최유화 최은임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아슬 최익현 최인숙 최인순 최장선 최재하 최점순 최정숙 최종선 최주현 최준원 최진미 최찬미 최창명 최창현 최대선 최태원 최태호 최현경 최현숙 최혜실 최화옥 추춘자 태영철 표재만 하경순 하류자 하미숙 하복희 하 희 하정호 하창호 하한자 한경수 한경숙 한교명 한국수 한도경 한명희 한병남 한성희 한영숙 한영애 한영호 한은경 한은혜 한정에 한주우 한진석 함성도 허강일 허금자 허문정 허미라 허배도 허수이 허옥순 허정희 허진향 허택민 허현 허훈영 허희경 현지원 홍교원 홍동숙 홍미애 홍복순 홍석현 홍선옥 홍성택 홍성훈 홍수경 홍수자 홍영환 홍용선 홍태숙 홍현창 홍화득 홍희숙 황기영 황금숙 황명숙 황미애 황보수 황보원에 황보화숙 황봉순 황상문 황영미 황옥선 황우규 황유리 황윤락 황인수 황정선 황정주 황정호 황준옥 황지영 황철규 황철호 황대식 황대정 황현주 황현희 황호규 황화주 황환도

# 대신대학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 입시일정 안내

**2018학년도  
정시모집("다군")** 원서접수 2018. 1. 6(토) ~ 1. 9(화)  
전형일 2018. 1. 29(월)

**2018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 2017. 12. 14(목) ~ 12. 20(수)  
전형일 2017. 12. 27(수)

## 모집학과 안내

**학 부** 신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영어학부 **【상담심리전공, 영어전공】**

음악학부 교회음악전공  
**【성악, 작곡, 오르간】**

기 악 전 공  
**【피아노, 관현악, 플루트】**

실용음악전공  
**【워십리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실용작곡, 재즈피아노】**



학문 · 경건 · 사랑  
**대신대학교**  
DAESHIN UNIVERSITY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TEL : 053)810-0701~3  
FAX : 053)813-0006